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업무 전산망 개통

전 은 속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유통과 식품위생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6년부터 '97년까지 총 40여억원을 투입하여 본청과 각 지방청, 검역소 및 관세청을 연결하는 수입식품검사업무 통합 전산망을 '98년 4월 14일자로 개통하였다. 이 전산망 구축으로 검사대상 품목의 자동분류 등 다양한 정보검색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신속성·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식품관련 각종 국내·외 정보 및 과거검사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입식품검사업무에 활용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수입식품검사업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수입자가 직접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즉 전자문서 처리방식이나 디스켓으로도 수입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수입식품 통관으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1. 수입식품 검사업무전산망 구축 배경

식품류의 수입은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의 향상, 생활패턴의 서구화와 WTO 체제에 따른 무역자유화 조치 등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에서뿐 아니라 종류에 있

어서도 다양해지고 수입상대국의 범위도 10여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한끼라도 수입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가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는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이라는 것을 알고 소비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아마도 필자가 생각컨대 모르고 소비하는 경우가 더 많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하고 있는 수입식품류의 범위는 그야말로 방대하다. 예를 들면 과자·사탕·통조림 등과 같은 가공식품에서부터 주류와 농·임산물뿐 아니라 식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품첨가물과 주방용품과 같은 용기나 식품의 포장재 등에 이르기까지 농림부에서 검사하고 있는 축산물을 제외한 우리의 먹거리와 관계가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검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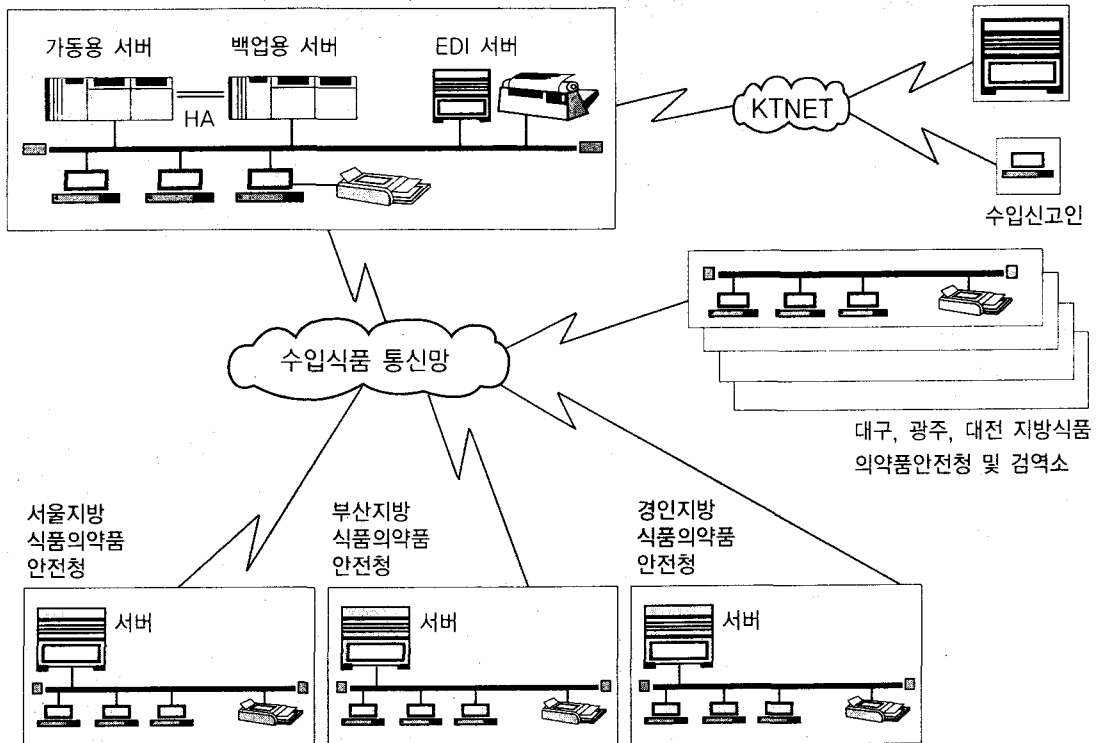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미국산 자동차와 수입밀의 잔류농약 사건 등 우리 소비자들 대부분이 수입식품 하면 위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발생한 미국산 소고기의 O157:H7사건도 아직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WTO체제에 따른 식품의 수입통관과 관련된 제도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과 규격·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간의 통상마찰

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신속 및 투명성이 확보된 수입식품 검사업무로 국제 교역상의 통상마찰해소를 위해 재정경제부가 주도한 「검사·검역

제도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수입식품검사 업무 전산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새로운 전산망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H/Y 및 N/W 운영환경



2.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현재까지 사용된 전산망은 단순 검사처리 결과만 입력되어 결과 집계와 산출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수입식품 검사단계에서의 각종 정보에 의한 검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96년부터 '97년까지 총 4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본청과 지방청, 검역소 등 총 20개 검사기관과 관세청을 온라인 초고속전산망으로 연결

하고 식품관련 각종 국내·외 정보 및 과거 검사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정보관리체계를 '97년 12월말에 구축 완료하였다. '98년 1월부터 3월까지 프로그램 보완작업과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98년 4월 14일자로 새로운 수입식품전산망을 개통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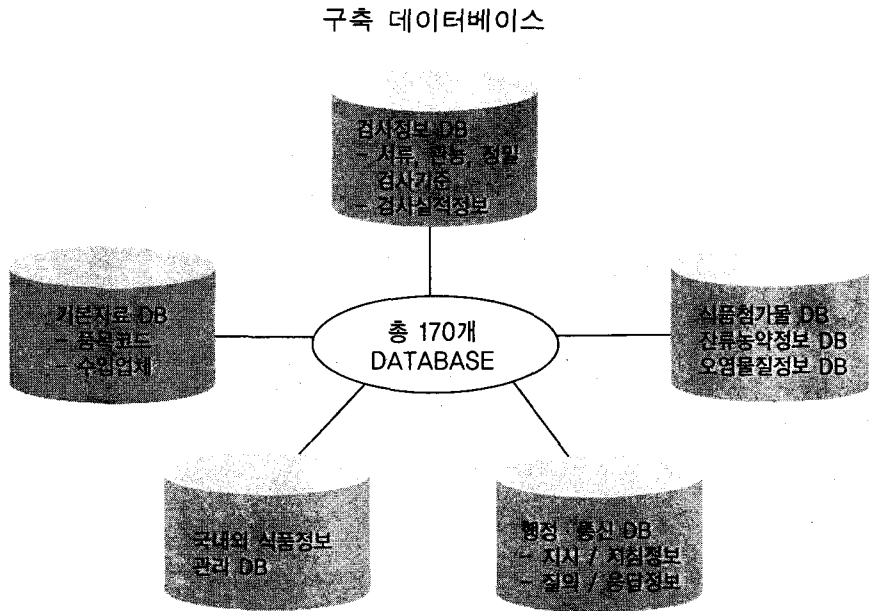
새로이 구축된 전산망은 수입신고서의 접수와 처리완료까지의 행정처리업무와 검사업무를 지원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및 조회업무, 수입식품 관련 각종 통계처리업무, 사용자관리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관리업무로 구성되

어 있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부문과 검사 업무의 투명성 및 과학화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부문은 자료관리, 검사업무, 정보검색, 통계관리, 시스템관리 등 5개의 하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부문은 기본자료, 검사정보, 식품첨가물 및 위해물질 정보와 수입식품 등과 관련된 각종 지시지침이나

식품관련 최신 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하드웨어 환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수입식품검사업무 과정에서 처리되는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트랜잭션에 대한 서비스를 관리하는 TUXEDO 서버,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 서버를 탑재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다.



이에 대한 백업체계로서 백업 서버와 전자문서의 관리를 위하여 EDI 서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서울·부산·인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각 지역의 자료관리와 트랜잭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다.

각 기관간에 있어서는 동일 통화권인 경우에는 전용회선으로, 동일 통화권내가 아닌 경우에는 교환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EDI는 KT-NET라는 VAN사업자를 통하여 관세청과 연계되어 있다.

3.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집중 검사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수입식품전산망 개통으로 과거의 검사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수입식품의 위해 가능성에 따른 집중적인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수입식품검사업무의 진행상황을 검색할 수 있으며, 검사대상 품목의 자동 선별과 EDI나 디스켓으로도 수입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는 등 검사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전산망의 가동 이후에는 각 검사기관간에 신속한 정보교환이 가능하여 검사기관간의 업무처리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검사대상 식품의 자동분류검색처리 등 다양한 기능 활용으로 정밀검사 비율의 축소 및 검사기간 단축효과로 불필요한 민원이나 통상마찰을 해소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된다.

다만, 현재 지방청이나 검역소에서 EDI로 검사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있으나 EDI에 의한 수입신고업무는 EDI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마련중이어서 6월중에는 EDI에 의한 수입신고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로운 수입식품검사업무전산망을 적극 홍보하여

수입자가 보다 편리하게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식품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정보/식품의약품안전청 '98.5 발취)

수입식품 검사업무

